진실이 오른다 - 밀레 MILLET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N TECHNO UNIVERSITY

완도해조류박람회 관람객 하루 2만 '대박' ▶2
광주 아동보호기관의 '학대 보고서' ▶6
아시아 문화원류 - 리수족의 복식과 풍습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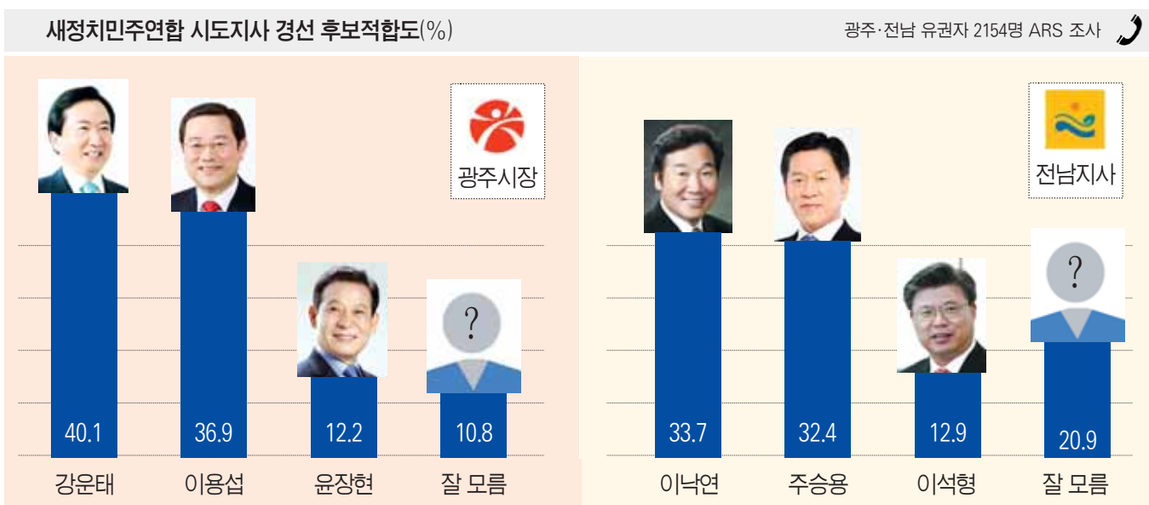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718호 1판 2014년 4월 14일 월요일 (음력 3월 15일)

광주시장 강운태·이용섭 오차범위내 '혼전'
전남지사 이낙연·주승용 1.3%P '초박빙'

광주일보-(주)타래 새정치연합 후보 여론조사
▶관련기사 4·5면

광주시장 적합도
강운태 40.1·이용섭 36.9%
윤장현 12.2%로 3위

전남지사 적합도
이낙연 33.7·주승용 32.4%
이석형 12.9%에 그쳐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후보 지지도 조사결과 광주에서는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이 선두를 놓고 오차범위내에서 혼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윤장현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위원장이 뒤쫓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응답 층에서는 강 시장, 이 의원과 윤 위원장이 근소한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에서는 이낙연 의원과 주승용 의원이 초박빙의 차이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이 의원은 전남 서부에서, 주 의원은 전남 동부에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전남 동서간 지지도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광주시교육감 선거에선 장휘국 현 교육감이 오차범위내에서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에 앞서는 등 양강구도를 형성한 반면 전남교육감은 장만채 현 교육감의 독주체제였다.

이는 광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타래'에 의뢰해 지난 12일 광주·전남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154명(광주 1085명·전남 10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광주와 전남 모두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이다.

조사결과 광주시장 후보 지지도(다자대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강운태 광주시장이 35.7%로 선두를 달렸고, 같은 당 이용섭 의원이 33.0%로 오차범위 내에서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10.1%) ▲무소속 이병완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5.3%) ▲새누리당 이정재 광주시당 위원장(4.0%) ▲통합진보당 윤민호 광주시당 위원장(2.4%) ▲노동당 이병훈 노무사(1.9%) 순이었다. 무응답층은 7.6%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경선 후보 적합도에서도 강 시장이 40.1%로, 이용섭 의원(36.9%)과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장현 전 위원장은 12.2%였다.

전남지사 후보 지지도(다자대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의원과 주승용 의원이 각각 32.5%와 30.4%의 지지율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같은 당 이석형 전 함평군수(11.7%), 통합진보당 이성수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획실장(3.5%), 새누리당 이중효 가천대학교 겸임교수(3.0%) 순이었다. 무응답 층은 15.4%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경선 후보 적합도에서도 이낙연 의원이 33.7%로, 32.4%를 얻은 주승용 의원과 1.3%포인트 간발의 차이로 앞서며 초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형 전 함평군수는 12.9%에 그쳤다.

다만, '잘 모르겠다'는 지지 유보층이 응답자 10명 중 2명꼴인 20.9%로, 아직까지 차기 전남지사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향후 부동층의 향배가 현재 박빙의 선두 다툼을 펼치고 있는 이낙연·주승용 의원의 경선 결과를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에 대해 광주에서는 56.0%가, 전남에서는 48.2%가 '잘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광주교육감은 장휘국 현 교육감이 28.1%로 24.7%의 지지율을 보인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에 앞섰고 전남교육감은 장만채 현 교육감이 39.1%로 김경택 동아인재대 총장(15.6%)을 크게 앞섰다.

한편 흔들리는 안철수 리더십에 대해서는 광주·전남 지역민 10명 중 5명(50%)이 긍정적으로 답변했지만, 과거 대권 후보 당시 광주·전남에서 나온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에 비해서는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임내현, 장병완, 김동철, 강기정, 박혜자(왼쪽부터)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광주 국회의원 5명이 13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 공개지지'를 하려는 도중 타 후보 지지자들이 몰려와 강력 항의하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새정치 광주 국회의원 5명 윤장현 시장 후보 공개지지

지방선거 사상 초유의 일
낙하산 공천 수순 관측에
시민 참정권 제한 논란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광주 국회의원 5명이 광주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한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는데다 새정치민주연합내에서도 공개 지지를 선언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가 나오고 있어 공천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김동철, 강기정, 장병완, 박혜자, 임내현 의원은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윤장현 전 위원장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라며 "새 정치를 완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윤 전 위원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은 윤 전 위원장 지지가 전략공천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라며 "전략 공천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경선이 있다면 윤 전 위원장을 지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장현 전 위원장은 "고뇌에 찬 결정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며 "광주에서 새 정치의 바람을 일으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는 광주시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특정 후보 지지에 나선 것은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후, 초유의 일로서 전략공천이 이뤄진다면 시민참정권을 제한한다는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시장 후보를 '낙하산 공천' 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최고위원(박혜자), 광주시당위원장(임내현), 정책위의장(장병완) 등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해야 하는 지도부 인사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후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이 보고 됐으며 조경태 최고위원은 "공정 경선을 관리해야 할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광주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광주시장 선거에서 윤장현 위원장을 지지키로 한 것은 지도부 뜻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gnju.co.kr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혁신도시에 사물인터넷 혁신 클러스터

사물·사람 정보 교류·소통
1106억 들여 서비스체계 구축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 도시'에 유무선 통신으로 기반으로 사물 간, 사물과 사람 간 정보를 교류·소통하는 지능형 서비스 체계가 구축된다.

2014년부터 5년간 국비 697억원 등 1106억원의 예산으로, 사물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물인터넷 통합센터 구축, 전남지역 농수산 분야와 연계한 연구개발 실증사업 9개 과제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전남도는 13일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지난해 말 신청한 '빛가람 사물인터넷 혁신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 자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최근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 시장을 30조원으로 육성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세계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는 유망미래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초고속 통신망 확대와 함께 전통산업부터 미래 신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과 함께 미래 방송·통신을 아우르는 신산업 분야로, 국가 성장 동력의 핵심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